



대한적십자사, 신안 선박사고 구호활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신안 해상 선박 전복 사고 관련 긴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재난심리상담지원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지난 4일 신안군 입자면 대비지도 해상에서 여선 선박 침몰 사고가 전복돼 선원 3명이 구조되고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현재 구조 당국은 수색과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생존자와 실종자 가족, 구조요원에 필요한 담요, 일용품, 의류로 구성된 긴급구호 물품 20세트를 지원했다. 또 대한적십자사 전남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상담활동을 파견해 재난심리지원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법정 긴급구호지원기관으로 신안지역 사고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구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심리상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주비 기자**



광주환경공단, 본부동 '경사로 설치' 완료

광주환경공단은 방문객들의 왕래가 잦은 본부동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빠르게 건물의 내·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공단은 전 사업소에서 폐토너 카트리지를 수집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환경기초시설에 방문해 현장 견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수요시설 등을 찾아 간단한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등 인권경영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김성환 이사장은 "대중교통으로 방문이 어려운 환경기초시설의 위치 특성상 일단 공단을 방문한 모든 시민의 걸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서부소방, 옥내소화전 한·영 동시표기 부착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서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6개소 대상으로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를 안내 및 부착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옥내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간단한 조작과 강력한 수압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지만 그동안 옥내소화전 사용법 안내문은 대부분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화재안전성능기준(NFPA 102) 의하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에 모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 한글과 외국어가 동시 표기된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스티커 부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혜인 기자**



나주시 공무원, 사랑의 헌혈 동참

나주시 공무원들이 올해도 단체 사랑의 헌혈로 혈액 수급난 해소와 나누면 기적이 되는 생명 사랑을 실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과 공동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 행사를 가졌다.

헌혈에는 공무원 110명, 시민 12명이 동참했다. 1명의 뇌사 장기 기증으로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장기기증에는 30명이 등록했다.

헌혈 참여 공직자에게는 공가 및 상시학습 시간을, 시민에게는 봉사시간과 나주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각각 증정했다. **나주=박송엽 기자**



전력거래소 '한국그리드포밍' 기술실증 추진

전력거래소 사내벤처로 출발한 1호 분사창업기업 ㈜한국그리드포밍이 대규모 그리드포밍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사진)

㈜한국그리드포밍(대표 강지성)은 최근 파이온일렉트릭(대표 윤광희),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회장 곽영주)와 그리드포밍 설비의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그리드포밍은 탄소중립 전력망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그리드포밍 설비를 개발 하고 있다.

그리드포밍 전압·주파수 제어, 전력망 해석 장치 기술 부분 특히 등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를 위해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파이온일렉트릭은 분산에너지원의 증가에 따른 전력시스템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새대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순수 태양광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수익 증진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완성 노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혁신도시=김용의 기자**



나주교육청,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나주교육지원청은 운전·조리직 공무원과 민원인 응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전남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마음건강 치유 과정'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프로그램은 △동맥경화, 스트레스, 체성분, 활성산소 검진 △일대일 건강상담 △차운 명상을 통한 다도 체험 △아로마테라피, 한방치료, 족욕 체험 등 전문적 통합의학 치료가 진행됐다.

박윤자 나주교육장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갈등 및 스트레스는 조직의 비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박송엽 기자**



비욘세 '그래미 여왕' 역대 누적수상 32개 신기록

미국 슈퍼 팝스타 비욘세(Beyoncé·42·사진)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새 기록을 쓰며 진정한 '그래미 여왕'으로 등극했다.

비욘세는 6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타컴 아레나에서 열린 '제65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4개 부문 수상을 추가하며 역대 '그래미 어워즈'에서 총 32개 트로피를 안았다.

기존 그래미 어워즈에서 가장 많은 상을 탄 주인공은 31번의 기록을 남긴 헝가리 출신 지휘자인 고(故) 게오르크 솔티(1912~1997)인데 솔티의 기록을 갱신했다.

사전 시상식에서 '브레이크 마이 솔(Break My Soul)'로 '베스트 댄스-일렉트로닉 뮤직 레코딩(best dance-electronic music recording)', '플라스틱 오프 더 소파(Plastic Off the Sofa)'로 '베스트 트래디셔널 R&B 퍼포먼스(best traditional R&B performance)'를 받았다.

본 시상식에선 '커프 잇(CUFF IT)'으로 '베스트 R&B 송 워너(Best R

&B Song winner)', 정규 7집 '르네상스'로 '댄스-일렉트릭 뮤직(dance-electric music)' 부문을 가져갔다.

비욘세는 이번 시상식 전까지 28번 그래미 상을 받았다. 여성 아티스트 중에선 최다 수상이었다. 28번의 수상 경력을 가진 프로듀서 퀸시 존스와 동물이었는데 이번에 능가했다.

비욘세는 '댄스-일렉트릭 뮤직'을 받은 뒤 "이 모든 것을 만끽하겠다. 하나님께도 감사하다. 돌아가신 삼촌 조니, 부모님, 남편(제이지),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세 아이, 그리고 퀴어 커뮤니티, 그라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1980년대 전후의 미국 클럽 문화·블랙 뮤직에 대한 존중을 담은 '르네상스'는 작년 나온 음반들 중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소수자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도 녹였다. 특히 자신에게 많은 영감을 준 성 소수자 삼촌 조니에게 헌정했다.

비욘세는 이번 시상식에서 정규 7집 '르네상스'와 수록곡 '브레이크 마이 솔' 등으로 총 9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뉴시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美 '빌보드 200' 1위

4세대 K팝 간판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사진)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5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지난달 27일 발매한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TEMPTATION)'이 11일자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이전까지 이 팀의 해당 차트 최고 성적은 지난해 5월 발매한 전작인 미니 4집 '미니소드 투 : 서스데이스 차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로 겨운 4위였다.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K팝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BTS)(여섯

번 정상), 슈퍼엠(SuperM),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2번 정상), 블랙핑크(BLACKPINK)에 이어 다섯 번째다.

'빌보드 200'은 전통적 음반 판매량과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숫자,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숫자 등을 합산해 인기를 매긴다.

현지 팬덤이 두터우수록 순위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 K팝 팬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차트에 진입하는 팀들이 늘고 있는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대표주자다. **뉴시스**